

자연재난 안전지대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상무 유병규

세계적으로 자연 재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00년 전과 비교해 세계 재난은 40배 정도 늘었다. 특히 올해에 발생한 미얀마의 사이클론과 중국 쓰촨성의 지진은 세계 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와 엄청난 피해액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결코 자연 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에 들어 재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1916년부터 2006년까지 피해액 기준으로 세계 재난 1위부터 10위를 선정할 결과 2001년 이후 한국은 모두 10위 안에 포함됐다.

앞으로도 한국은 각종 자연 재난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자연 재난은 크게 기상 재난과 지질 재난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양 측면 모두 안전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기상 재난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이상 파랑, 마른 장마와 게릴라성 폭우, 폭설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겨울철에만 발병했던 AI가 올해에는 봄철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 5월 충남 보령시 죽도 방파제 부근에서 23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파랑 역시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상 기후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예전과 달리 장마 기간에는 강수가 적고 장마 종료 후 게릴라성 폭우가 빈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공공시설만 약 32억8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01년 이후 폭설에 의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지진 재난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한반도에서는 리히터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지진 발생 횟수가 급증 추세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평균 지진 횟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3회로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20회보다 무려 2배 이상 많다. 지진 발생 횟수가 많아

지면서 강진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1978년부터 2007년까지 한반도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다섯 번이나 발생했다. 이 정도면 무거운 가구가 흔들리게 되어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다.

이처럼 자연 재난에 크게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재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독일의 재보험회사인 무니크 리사에 따르면 서울·인천의 자연재해 위험지수는 15로 중국의 베이징과 함께 세계 50대 도시 중 14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한국은 1978년 홍성 지진 이후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나 2006년까지 진도 6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여진 정도에도 전국의 건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기업은 한국의 재난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선 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악의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등에 내진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지역별 재난 관측센터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 예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재난 유형별 관측으로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기업들 역시 경영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재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재난 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으로 고객 데이터 등과 같은 중요 자료가 손실될 것에 대비해 완벽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본사와 해외 지사 등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연 재난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길이다.